

출판·소·시

학술교양지 '고미술'

한국고미술협회(김종춘)가 발간하는 학술교양지 <고미술>(총권 43호)이 현대 감각에 맞는 알찬 내용으로 새롭게 선보였다.

지난해 9월 22일 국보로 지정된 칠장사 오불회괘불탱 등에 대한 소식과 문화재전문위원 이호관씨의 특별기고 '해외 문화재 환수운동에 대하여' 등을 비롯 원색화보와 더불어 고미술 관련 각종 정책, 고미술 유통정보를 현창취재와 함께 다루고 있다.

'전북의 전통사찰' 출간

사찰문화연구원이 전통사찰총서 제8.9권 <전북의 전통사찰.1.2>을 출간했다.

김재 금산사를 필두로 화보와 상세한 설명을 곁들여 전북지역 101곳의 전통사찰을 두루 살피고 있다. 또한 부록으로 지정문화재와 절터, 불교금석문, 사암주소록 등을 실었다.

'내고향 문화유산 찾아서'

한국토지공사가 멋과 정이 가득한 고향이야기들을 책으로 묶었다. <내고향 문화유산을 찾아서 상·하>가 바로 그것. 사라져가는 소중한 우리의 문화와 잊어서는 안될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을 지켜나가기 위해 펴낸 이 책은 서울특별시에서부터 제주도에 이르는 전국의 명소와 유물 유적 등을 지도와 사진으로 소개한다. 또 휴전선 너머 북한의 주요 문화유적도 실었다.

새로나온 책

▲만들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한국문인협회 회원이자 현재 성일정보산업고등학교에 재직중인 신술래씨가 펴냈다. 새로운 시각으로 자연속에 숨어있는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들을 수채화처럼 가벼운 필체로 아주 쉽고 따뜻하게 전하고 있다. <솔리 7천원>
▲주역강의=유·불·선에 정통하고, 대만 총통의 국사(國師)를 역임한 남회근선생의 <계사전> 강의록 상·하권 모두를 다룬 책이다. 남선생은 "역에서 천하의 뜻에 통달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도를 깨달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독특한 시각으로 역을 통해 모든 이치를 꿰고 있다. <문예출판사 1만5천원>
▲차의 기원을 찾아서=차의 원산지인 중국·인도·미얀마·카이 등의 차나무에 대한 기록과 각국의 차종류, 제조방법 등 풍부한 연구자료를 담은 책이다. 경북대 임학과 박용구교수가

“감동시키는 설법 하려면...”

정순일교수 '설법 그 이론과 실제' 펴내

"비구들이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말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조리와 표현을 갖춘 진리를 설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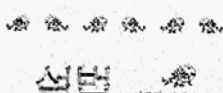
정각을 이룬 부처님은 첫째자들인 다섯 비구에게 이렇게 설법했다. 설법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됐다.

부처님과 불제자들은 설법을 통해 불법을 전했고, 설법은 포교의 중심수단인 동시에 불법이 살아 전해지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정순일교수(원광대)가 펴낸 <설법 그 이론과 실제>(민족사)는 포교의 현장에서 어떻게 설법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세심하고도 친절하게 설법의 모든 것을 안내한다. 그동안 설법을 위한 자료집은 많이 발간되어 왔으나 설법의 이론에서부터 역사, 설법원고 작성, 연설방법 등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쓰여진 것이 이 책이 처음이다.

"설법을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보다 좋은 설법을 위해서 설법자는 늘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정교수는 "설법이 적합한 이론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목적의식에서 탈선하기 쉽고, 청중들에게 새로운 것을 전달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 책은 제1, 2장에서 불전에 나타난 설법에 관한 이론과 설법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제3장부터는 설법의 구성방법과 자료수집, 그리고 연설에 따른 제반 문제에 이르기까지 설법에 관한 실질적인 문제들을 효과



정순일교수

적으로 다루고 있다. 인도·중국·한국불교의 교화와 설법의 역사를 경전과 어록, 당시의 스님과 제자들의 활약상을 통해 짚어낸다. 서북인도에서 불교를 포교한 마명(馬鳴)과 대승불교를 발전시킨 데 공헌한 용수(龍樹) 등을 인도의 명설법자로 소개하고, 중국불교는 방대한 양의 선어록에서 설법의 특징을 찾고 있다. 또한 불교전래 이후 원광법사, 자장, 원효, 의상, 경허스님 등으로 이어진 고승들의 행적속에서 한국불교 설법의 명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이론적 토대위에서 설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설법 자료수집과 설법안 작성시의 전체적 방향의 점검, 주제의 착상, 그리고 이에 대한 교리적 근거의 설정 등을 설명한다. 설법



교리적 근거 바탕삼아

설법의 역사 연구

원고작성·연설방법 안내

안 작성시 예화활용과 삽입의 기법, 표현의 기법, 설법연설의 자세와 제스처, 음성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안내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설법의 자료와 원고 등을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준비하라고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 책은 오늘날 여러 가지 강연과 연설의 테크닉이 발달해 있지만 그 근원적인 방법이 이미 오래전에 불교의 전통속에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음을 깨닫게 해준다. 따라서 정순일교수는 "그러한 방법을 내 것으로 삼아서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하느냐가 훌륭한 설법자가 되는 관건"이라고 역설한다.

이은자 기자

적어도 두루고 있다. 인도·중국·한국불교의 교화와 설법의 역사를 경전과 어록, 당시의 스님과 제가거사들의 활약상을 통해 짚어낸다. 서북인도에서 불교를 포교한 마명(馬鳴)과 대승불교를 발전시킨 데 공헌한 용수(龍樹) 등을 인도의 명설법자로 소개하고, 중국불교는 방대한 양의 선어록에서 설법의 특징을 찾고 있다. 또한 불교전래 이후 원광법사, 자장, 원효, 의상, 경허스님 등으로 이어진 고승들의 행적속에서 한국불교 설법의 명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이론적 토대위에서 설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설법 자료수집과 설법안 작성시의 전체적 방향의 점검, 주제의 착상, 그리고 이에 대한 교리적 근거의 설정 등을 설명한다. 설법

“空的 도리 생활속 실천”

인터뷰 '반아심경' 펴낸 고목스님

지난해 초 <일면불 월면불>을 시작으로 불과 1년 사이에 <화두이야기> <조주북당구> <행복한 감성의 세계로> 등을 잇따라 펴낸 고목스님이 최근 현대언어로 알기쉽게 풀이한 5번째 책 <반아심경>(삼양)을 펴냈다.

<반아심경>의 공도리(空道理)를 불자들이 보다 쉽게 체득할 수 있도록 스님은 <반아심경>의 위치와 종류, 구도와 사상을 먼저 살핀 후 경전의 본문을 바깥의 의심을 떨쳐버리는 과

목·본체를 나타내 보이는 과목·의심을 여의는 도리를 밝히는 과목·일을 바 없음이 함 속독임을 말하는 과목 등으로 나눠 생활속에 실천하며 관조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구성했다.

또 <아함경>에서 <벽암록>까지의

“부처님 해명 전하지” 1년새 5번째 집필



선어록을 통해 공의 실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현재 부산시 기장군 장안을 덕선리 한 암자에서 홀로 수행정진중인 스님은 "생활속에서 불법을 표현하고, 불자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보다 가깝게

느끼도록 해서 불교진리의 참뜻이 사치스러운 장식품이 아님을 일깨워 주고 싶었다"라고 말한다.

이처럼 불자라고 숫자 자랑만 하는 오늘의 불교모습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스님은 이를 타파하고 부처님의 해명이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수행자로서의 당연한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앞으로 <벽암록> <종용록> 등 옛 스님들의 송고가 수록돼 있는 전적들을 생활과 접목시켜 쉽고 간결하게 정리하겠다는 사원을 세운 스님은 그 작업의 일환으로 올해 안에 어록가운데서 가장 난해하다는 운문종 개조 운문스님의 <운문록>을 펴낼 예정이다. <은>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Lists top 10 books including '생관속의 기도법',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etc.

책방 역시이문 집필

구입문의: (02)737-0695

헛소리 우항 지음

수행·신도상담 경험 진솔하게 정리

헛소리 (헛소리)는 오랜 동안 토포생활을 하며 참선정진에 정념해 온 스님이 천은정사 포교당을 꾸려가며 그동안 틈틈히 써온 수행과 포교에 대한 단상과 신도상담의 경험을 정리한 것이다. 스님은 이 책에서 불명의 진(眞)의 문(門)을 우리앞에 제시하며 참된 삶에 대한 자각의 길을 열어준다. <생활문화사 7천원>

깨달아 나아가는 데 좋은 화두가 따로 있을까? 우항스님(천은정사 주지)은 우리들에게 말한다. "마음자리 밝히기 위해 일심으로 수행정진 하는 것이 바로 화두"라고. 따라서 그 화두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또 한가지일 수도 있다.

화제의 책

불교이야기 유머 유보산 지음

수천년간 구전된 불교이야기 묶어

<불교이야기유머>는 수천년간 스님들로부터 구전되어 온 이야기를 묶어 스스로를 비취볼 수 있도록 유머러스하게 맥을 잡아 놓았다.

부처님의 출가부터, 중생도와 과정, 경전 이야기, 그리고 큰 스님들의 깨달음의 말씀 등을 소개한다. 이 책은 종교간의 팽팽한 사이를 느슨하게 하기위해 어렵고 딱딱하게만 생각해 오던 불교의 깊은 진리를 풀어 해쳐 놓아 옛날 이야기 읽듯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지은이 보산스님(통도사)은 이러한 재미있으면서 심오한 뜻을 지닌 이야기들이 우리사회 화합의 기틀을 이루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한다. <미래문화사 8천원>

화제의 책

우는 낙타의... 박찬 지음

실크로드의 문화매력 전한 기행기

시인이자 스포츠서울 사회부 차장으로 재직중인 박찬씨의 실크로드 기행 <우는 낙타의 푸른 눈썹을 보았는가>는 불교유적이 숨쉬고 있는 실크로드 사막지대의 매력을 듬뿍 담고 있다. <왕오천축국전>을 남긴 해초스님, 파미르 고원을 호령했던 고선지 장군의 숭고와 조선족들의 삶의 모습들을 70여장의 사진과 지도로 엮어 자연의 위대함과 문화유적의 소중한, 문명에 찌들지 않은 사람들의 따뜻한 인간성을 새삼 발견하게 한다. '실크로드의 황량한 사막으로 떠나라!' 그리고 버릴 수 있거든, 그때 돌아오라!' 박찬씨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해냄 1만1천원>

번역·원문·용어해설·감상·선시해설·작자소개!

선시감상사전 禪詩鑑賞辭典. 마음을 밝히려는 이에게 주는. 신간!

詩人이자 자기 성찰의 수행자 석지현 스님! 최초로 禪詩라는 말을 사용하여 문학의 한 장르를 형성시킨 석지현 스님!

중국·한국·일본의 선시(禪詩) 1431편을 뽑아서 원문과 번역, 용어해설을 하였고, 각 사(詩)마다 불인 석지현 스님 특유의 '감상'은 선시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세계를 적요하게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련한 <선시란 무엇인가>, <선시의 역사>, <선시의 사풍(詩風)>, <선시의 종류>, 그리고 품중한 <작자소개>와 <색인>은 독자로 하여금 선시를 이해하는 데 좋은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46판 양장/전2권/한국판 1328쪽 / 값 38,000원 중국·일본판 792쪽/값 25,000원

석지현 스님 산문집 바람의 길. 1986년 가을 어느 날 저녁, 나는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혀 누워 있었다. 어쩌면 아마도 내가 영연히 혼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안개처럼 밀어오르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아주 저 멀리서 바라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값 5,500원. 방랑의 시인, 미라/석지현 옮김. 누구의 연인도 될 수 없나이다. 영혼의 거장들이 남긴 詩 ①/너의 연인은 크리 슈나이다. 너의 영연한 예인은 크리슈나. 저 사랑의 신 크리슈나. 오직 사랑만이 너의 영연한 예인이란다. 값 3,000원. 영혼의 시인, 까비르/석지현 옮김. 그가 있는 어디든 나는 있으리라. 영혼의 거장들이 남긴 詩 ②/까비르 것처럼 배울 길이 제법한 사람 열렬히 깨달음을 체험한 사람은 없다. 까비르 그는 인도의 대표적 시인 타고과 간다에 의해 절대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값 3,000원. 크리슈나무티/석지현 옮김. 그녀는 너무 멀다. 영혼의 거장들이 남긴 詩 ③/젊은 구도자의 詩. 이 시선이 닿는 곳마다 그녀가 있다. 그녀의 가슴으로 나는 불타고 있다. 값 3,500원.

천오백만 불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불교 명언집!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신간! 석성우·석지현 스님 엮음. 금세기 대표적 청정 율사이신 석성우 스님과 詩人 석지현 스님께서 경전을 읽으시면서 모은 감동적인 불교 명언들! 하루 한 구절, 부처님 말씀 300가지! 1년 365일이면 당신도 훌륭한 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는 불교의 여러 경전과 조사 선지식들이 남긴 말씀 가운데서 주옥 같은 명언을 뽑은 것입니다. 이 책은 치성하게 들끓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한 부처님 품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 46판 양장 / 값 5,000원